

# '한국형 도시농업' 세계와 공유

### 농진청, 내일부터 이틀간 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채널 통해 시청 가능

국제 도시농업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도시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시간법인 인간식물환경학회, 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국제 학술 토론회를 18~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국제 도시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각 나라의 도시농업 유형을 소개하고, 국제 도시농업의 공동 목표와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유럽, 호주, 대만 등 해외 도시농업 전문가와 국내 산업체, 교수 등 참석자들은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제 도시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서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프란체스코 오르시니 교수가 '유럽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네덜란드 푸드포굿 농장 한스 피즐 대표가 '네덜란드 도시형 치유농업 연구 사례와 현황'에 대해 다룬다.

국제 도시농업의 다양한 발전 유형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정이 '한국 도시농업 현황과 국제도시농업연구센터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프레이저 토피 교수가 '국제 도시 녹화(綠化) 현황과 식물의 공기정화 효과' ▲대만 국립타이완대학 추엔창 교수가 '대만에서의 정원의 역할과 식물에 의한 신체 생리적 반응'을 소개한다.

도시농업 산업체 성공 사례 부분에서는 ▲에스파소조경 정미숙 대표가 '도시농업 속 실내정원' ▲원광대학교 이영미 교수가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케어팜 모델 제시' ▲드림플 송미나 대표가 '치유농장 프로그램 사례' ▲조이거든 김성호 대표가 '가드닝(정원가꾸기) 사업의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도시농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여가 취미, 여가 체험 학습 등 작물 재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마다 참여 인구가 도시 텃밭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중심의 농업이 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국민 공감대를



농촌진흥청은 시간법인 인간식물환경학회, 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국제 학술 토론회를 18~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어느 도시농업 현장.

형성할 수 있도록 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도시농업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이번 국제 학술 토론회가 한국형 도시농업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형 도시농업 모델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우리씨드 박공영 대표는 "국가별 도시농업의 전개 방향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도시농업이 전 세계 공동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토론회 영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경남 새남해농협과 부안 변산농협을 방문해 각각 일천만원씩의 도농상생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도농상생 한마음자금' 전달

### 전주농협, 경남 새남해농협·부안 변산농협 찾아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경남 새남해농협과 부안 변산농협을 방문해 각각 일천만원씩의 도농상생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전달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농협의 역할제고와 산지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전달식에는 송혁 농협전주원주시 군지부장,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류성식 새남해농협 조합장, 신왕철 변산농협 조합장, 각 농협 이·감사 등이 참석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농협 간 협력 이 도농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도시와 농촌 농협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농협은 2018년 김제 공덕농협을 시작으로 올해 새남해농협과 변산농협을 포함한 농촌농협에 총 7,000만원의 상생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 도농상생기금 63억원을 출연하는 등 도농 협동조합 간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 실천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5일(미국 현지시간) 공사 뉴욕지사(지사장 심화섭)를 방문해 올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한 뒤,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美동부에 '김치의 날' 제정 추진할 것"

### aT김춘진 사장, 뉴욕지사 찾아 주요 현안사항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5일(미국 현지시간) 공사 뉴욕지사(지사장 심화섭)를 방문해 올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한 뒤, 대미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 김치 홍보를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연말연시 기간 전파되고 있는 한국 김치 홍보 영상 송출 현장을 점검했다.

김 사장은 "김치는 한국의 대표 식품"이라며,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미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마동부지역에도 '김치의 날'이 제정돼 김치 중추국이 한국임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식량작물 쌀 발효소재 개발 공로

### 농진청 최혜선 연구사,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대상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의 기술대상'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기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 혁신 기술개발, 기술혁신 기반조성, 신기술 실용화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있을 예정이다. 올해 산업기술진흥 유공 기술개발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최혜선 연구사(수확후이용과)는 '식량작물·발효균주 융복합 기능성 강화 기술 산업화 성공'으로 식량작물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식량작물·발효균주 융·복합 기능성 강화와 원천기술을 개발해 학술적·산업화 관련 연구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관련 기술 이전 업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

하며, 토종 균주와 식량작물을 이용한 식물성 발효소재의 산업적 기반조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과 식물성 단백질, 토종 유산균을 접목한 식물성 발효 신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음료와 제과·제빵, 화장품으로 산업화를 확대해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초 고분해에 수목된 별미장 복원·과산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가 장류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한 간편 발효세트는 생활 밀착형 기술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전통 발효식품 유래 유용 발효생물을 찾아내 발효식품에 적용함으로써 수입 미생물 대체 효과를 거두고, 발효식품 중추국으로서 주권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농촌진흥청 최혜선 연구사는 "이번 수상은 농산업 현장과 함께 파란 어린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기술로 농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용화 연구에 전념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수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라며,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산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산목재 활용... 보성양묘사업소 청사 신축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보성양묘사업소 청사 신축공사를 16일 완공했다고 밝혔다.

보성양묘사업소는 지상 2층 목조건축물(연면적 286㎡)로 사무실, 휴게실, 식당,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려한 전망이 확보되는 2층 테라스가 조성되어 자연경관과 목(木)구조의 자연미가 어우러진다.

내·외벽 마감재에는 주로 낙엽송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내구성이 높은 집성목재를 사용하고 화장실 마감재로는 방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편



백을 사용했다. 목조건축물의 주요 특징은 친환경적이며 콘크리트 대비 견고하고 인장력이 강해 지진에 강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우수하며 단열성이 좋아 에너지 효율이 높다. /남원=김기우 기자

## 주력산업 생태계 건인 혁신역량 보유 기업 육성

###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선도기업' 내달 8일까지 모집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주력산업 생태계를 건인하기 위해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한 기업을 선발 집중 육성하는 '2021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육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4~8개사 총 100개사를 선정, 최대 6년간 정부·지자체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선도기업에는 집단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돼 기술개발 기획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고, 3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협업과제 R&D 기획을 위해 차년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 업종에 해당하면서, 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필수지표와 선택지표중 2개 이상(필수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에서 추천된 선도기업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기업검증과 제척사항 검토 후, 전북도에서 최종 선정한다.

모집 기한은 오는 12월 8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www.jonbuk.go.kr) 또는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선도기업의 모집·지정에 관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북테크노파크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지역내 주력산업기업들이 협업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역 농어촌 물포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전북도 지역 농어촌 물포럼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전북도 지역 농어촌 물포럼은 전북대학교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와 한국농공학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여 농업인과 물관련 학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합물관리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방안, '영·삼·금강유역 전북도 농업용수관리 정점사항 및 확보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국가물관리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농업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 뒤 통합물관리 제2기 위원 선정에서는 정책임자에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삼진강과 금강 등의 발원지와 댐 유역이 전라북도 임에도 불구하고 용수사용에 있어서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중기청, 중기 ESG 선제 대응 설명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근의, 이하 전북TP)는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ESG의 이해와 대응전략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과 기업의 참석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4회에 걸쳐 전주와 군산에서 개최되며, 중소기업 대표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을 참석대상자로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ESG 이해와 대응전략,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

템)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 등이며,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24일까지 전북TP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참석예정일, ▲기업명, ▲참석인원을 유선(063-882-6049) 또는 전자우편(lewis@jbtp.or.kr)으로 알려주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